

이제는 명품 특허심사 정책이다 !



안대진
특허청 전기심사과장

사 람들은 보석을 좋아한다. 그중에서도 다이아몬드를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한다. 이유는 무엇일까? 다이아몬드는 찬란한 빛깔과 더불어 희소성이 있어 높은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에서도 다이아몬드와 같은 소중한 자산 중의 하나가 바로 특허이다. 자신만의 고유한 기술을 특허로 확보하여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누릴 수 있다면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보유하고 있는 다이아몬드가 감정 결과 진품이 아니라고 판명되는 경우처럼, 등록 받은 특허가 추후 무효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면 이는 기업 경영은 물론 국가 경쟁력에도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특허심사 품질이 낮으면 특허를 취득하더라도 그 특허의 가치와 효용성에 대해 신뢰할 수 없게 된다. 부실한 특허로 인하여 경쟁 기업들과 불필요한 소송과 분쟁이 빈번하게 되어 국가 전체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

지난 6월 17일 발표된 특허청 고품질 특허심사 정책은 품질중심의 특허 심사 패러다임을 정립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특허강국의 면모를 쇄신해 지식부국을 선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허행정의 글로벌화로 특허심사 품질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심사 품질 중시 기조가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미국 특허청은 특허결정 적합률과 심사과정 적합률을 활용하여 특허품질을 평가하는 심사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허 심사의 적시성과 함께 특허품질을 최우선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유럽과 일본 특허청 역시 심사 품질을 관리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타국 특허청과 특허심사 결과를 공유하는 특허심사 하이웨이를 시행하는 등 심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국제 특허질서가 미·일·유럽 중심에서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G5 체제' 로 확대되면서 특허심사 품질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속도만 중요시했던 특허 심사를 고품질 심사로 전환하는 것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강하고 튼튼한 특허를 창출해 내기 위한 전략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특허 심사의 국제적 동조가

강화되고 특히 우리나라에 의뢰되는 PCT 국제조사가 급증함에 따라 세계가 우리의 특허심사를 주목하고 있다.

특허청의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은 양에서 질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기업의 특허전략과 일맥상통한다. 과거에 특허출원 숫자를 중요시했던 삼성, LG 등 대기업들도 이제는 특허의 기여도, 즉 특허로 인한 로열티 수입으로 판단기준을 바꿨고 이를 위한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그 예로 삼성전자의 특허 출원 건수는 '05년 17,813건에서 '07년 11,471건으로 35.6% 감소했지만 특허 관련 인력은 최근 5년간 2배 이상 늘리고 있다. LG 전자 역시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선택과 집중으로 종전 3~4개로 나누어서 내던 특허를 묶음 특허로 출원하는 등 양 위주에서 질 위주로 특허 전략을 전환하고 있다.

특허청은 효율적인 고품질 특허심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선행기술 검색수준의 고도화, 심사품질 관리체계 고도화, 심사인력의 역량 강화를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기술분야별로 검색 표준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선행기술 검색단계와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비특허문헌 검색기법을 체계화할 예정이다. 기술의 융·복합화, 선행 문헌의 양적 증대 등에 대응하여 단일 관점의 기술분류 한계를 극복하고 기술분야별로 다양한 관점에서 선행기술을 검색할 수 있는 일본의 F-Term과 같은 한국형 기술분류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하나의 키워드로 특허문헌과 비특허문헌 데이터베이스를 일괄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One-Click 통합검색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효율적인 선행기술 검색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선진국형 특허심사 품질 관리지표를 도입하여 특허심사 결과의 적합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한, 특허청 내외부에 선행기술자문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효율적인 심사관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심사 인력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품질 위주의 특허심사 정책으로의 전환으로 심사 처리기간이 전반적으로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할 수 있다. 중소기업과 개인은 심사처리 기간의 지속적인 단축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기업은 빠른 심사가 오히려 특허관리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들어 빠른 심사처리에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기술분야 별로 상이한 life cycle에 따라 심사처리 기간에 대한 이해관계

역시 복잡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은 맞춤형 심사처리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맞춤형 심사처리 제도는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고품질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빠른 심사를 원하는 고객을 위해서 우선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일반적인 심사처리 시점보다 더 늦은 시점에 심사를 원하는 고객을 위해 심사유예 신청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빠른 심사 청구의 경우 전문기관의 선행기술 조사보고서를 출원서와 함께 제출하면 누구든지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심사 신청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일반 심사의 경우 평균 16개월 이내 심사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심사처리기간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예정이다.

특허청의 명품 특허심사 정책을 위한 다양한 쇄신 방안들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실용정부의 신발 전체에 부응하여 선진인류 국가 구현이라는 비전 달성에 기여하고 특허심사품질에 대한 특허고객의 만족도 제고는 물론 한국 특허청의 특허심사 결과에 대한 국제 신뢰도도 확보될 것이다.

이러한 효과는 우리 기업들의 특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활용이 뒷받침될 때 배가될 수 있다. 기업들은 특허를 단순한 마케팅 수단 등으로만 취득하려 하지 말고 단단하고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특허를 취득하려고 노력하고 특허청은 국제적으로 내놓아도 손색없는 명품 특허심사를 제공하는 것이 지식재산 부국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특허청 전사적 심사품질 쇄신방안 및 고객 맞춤형 심사서비스 제공 방안

특허청 심사품질 쇄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선행기술 검색의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분야별 검색 표준 프로세스 구축 - 한국형 기술분류체계 구축 등 ② 심사품질 관리체계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형 특허심사 품질 지표 도입 - 심사평가체계 개선 및 심사품질 책임제 ③ 심사인력의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기술 자문 전문가 그룹 운영 - 심사관별 심사품질 자가진단체 실시 등
고객맞춤형 심사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빠른 심사를 원하는 고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심사 신청 대상 확대 -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첨부 시 가능 ② 늦은 심사를 원하는 고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유예 신청제도 도입 - 희망시점에서 3개월 이내에 처리 ③ 일반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 16개월 이내 심사결과 제공

발명특허 2008. 7